



배화교회의 모교는

흔탁한 가치관과 시대풍조를 따르지 않고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의 지향점이
거슬러 오르는 (Agere Contra) 생명력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하여 살던 민생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올 때 성취되는 일입니다
거슬러 올라 본질로 돌아가려는 (Ad fontes)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날마다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성공을 위해 효율과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문화를 향해
그것이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효율보다는 사랑이, 결과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일깨우는,
시대의 <소리>로 쓰임받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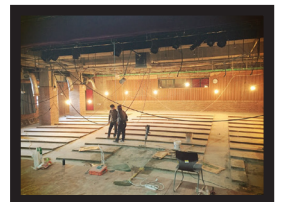
마태복음 5장 13절



배화교회

Baewha Community Church

행복한 배화인



주일에배순서

2016. 1. 24 오전 11시



여는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여는 기도 *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공동체찬양 1 나는 주만 높이리

공동체찬양 2 예수 닦기를

공동체찬양 3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대표기도 김용석 형제

기도찬양 우리의 기도를 통해

C F/G G/C F/G G C F/G C C7 F C/E

우리의 기도를 통해 - 오 주여 일하소서 - 주의 뜻이 이루어

6 F C2/E F G C Gm C7 Dm7 C/E Dm7/F F/G G C F/C C

서 - 아 - 만 - 아 - 만 - 만

공동체기도 다함께

- (1)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는 2016년이 되게 하소서.
- (2) 교회학교가 잘 준비되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 (3) 예배당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주를 모신 성전되게 하소서.

기도찬양 우리교회의 기도

C C/E F C/E Am Dm D/F# G

하 나 님을 사랑 하는 것이 알 고 기 은 이 되 게 하 시 며
부 모 님께 항상 감사 하 고 남 편을 존 경 아 내 뿔 사 랑
진 심 으 로 서 로 위 호 하 고 기 도 향 으 로 나 가 되 고

3 C C/E F C/E G C

우 리 님 에 게 미 용 없 게 하 시 고 영 혼 마 음 주 를 소 서
자 나 에 게 할 수 가 없 는 - 주 님 의 기 쟁 삼 으 소 서
주 님 뜻 이 이루어 지 는 교 회 하 니 님 나 라 일 하 소 서

교회소식 김영석 목사

- (1) 이동근 성도(이은미 성도)의 부친되시는 고 이순화 성도의 장례가 22일 금요일(20일 소천)에 있었습니다.
- (2) 오늘 가정성방은 김용석, 유재연 가정과 조용준, 강지영 가정입니다.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송민혜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3) 예배당 공사가 지난 금요일(22일)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담고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 지기를 소망합니다.

(4)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2016년 첫 교회예산안과 목회 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봉독 다함께 *일어서서 <로마서 6:3-7>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선포 김영석 목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갑시다

봉헌찬양 내 주의 보혈은 (254장)

*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헌금봉투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십일조, 감사 등 헌금제목과 이름을 직접 적어주세요.

축 도 김영석 목사

후 주 그의 길을 따르며

주 예수의 크고 높은 사랑 우리를 마음에 내려주사 베푸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사 찬양하리라